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보도자료	2025. 10. 22.(수) 즉시 보도 가능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	☎ 760-7601
		업무담당자	성지예	☎ 760-7632
		홍보담당자	양지순	☎ 760-7514

‘작은 농장도 브랜드가 된다’ 농가 이미지 마케팅 교육

- 동부농업기술센터, 24일부터 교육생 30명 선착순 모집 -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오는 24일부터 ‘이미지와 브랜딩(Branding)으로 완성하는 마케팅 심화 과정’ 교육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 ‘작은 농장도 브랜드가 된다’를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은 농산물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 공감을 이끌어내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다.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4회 15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 농업 분야에서도 ‘보여주는 시대’에 맞춰 이미지와 이야기 중심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농산물의 품질보다 농장 이미지에 먼저 반응하며, 사회관계망(SNS) 속 한 장의 사진이 신뢰를 형성하고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교육과정은 △1·2회차 사진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진심으로 소비자를 움직이는 ‘사진으로 말하는 마케팅’ 이론 및 실습 △3회차 소규모 농업인이 농산물의 ‘이야기’로 승부하는 마케팅 전략 사례 △4회차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메일 브랜드 상업화 사례 및 체험으로 구성된다.
- 농산물 이미지와 브랜딩에 관심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동부농업기술

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30명 모집이 완료되면 마감된다.

* 마감 이후에는 전화(☎760-7631~2)로 대기 신청 가능

* 누리집: agri.jeju.go.kr/dongbu/index.htm

○ 교육과정을 80% 이상 이수하면 전체 교육 시간이 인정되고, 30% 이상 이수한 경우 실제 이수 시간만 인정된다.

○ 자세한 사항은 동부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촌자원팀(☎760-76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성지예 농촌지도사는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니라, 농장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농업 철학과 진심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며, “작은 농장이라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로컬 브랜드를 기획한다면 소비자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